

제 6 교시

2016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원서 영역

1회

성명		수험번호																		
----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아래의 빈칸에 '최상위1%여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자'를 정자로 기재하며 시험 전 각오를 다지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배점은 2점, 3점 또는 4점입니다.
- 해설 강의는 12/11(금) '이투스> 입시정보컨설팅 > 오른쪽 위 최상위1%CLUB > 입시PLAY'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원서영역 모의고사 2회차는 12/14(월) 공개 예정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2016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6 교시

원서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1

-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다 생각하고 진지하게 풀기 바랍니다.
- 일부 문제의 난이도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험한 난이도를 맞보게 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외의 함정을 여기저기에 파놓았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배점은 2점, 또는 3점입니다.
- 누구나 맞출 수 있도록 쉽게 출제된 문제도 있으나, 이는 중요한 주제와 연결되는 해설용 문제입니다.

[1~2] 다음은 ○○고등학교 최상위권 학생들 사이의 대화이다. 다음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생 A: 성적표 받았니?
학생 B: 응. 지금 막 선생님을 뵙고 오는 길인데, 다음 주부터 수시모집 합격여부를 확인하고, 합격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본격적인 정시모집 준비에 들어가려고...
학생 A: 그러게, 성적은 대략 어떻게 나왔니?
학생 B: 노력했던 대로 평상시처럼 상위 2~3%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가채점 성적보다도 낮게 나온 것 같아. 특히나 탐구영역은 두 과목 모두 만점을 받았지만, 내가 응시했던 과목들의 표준점수가 다른 선택과목들에 비해 생각보다 낮은 것 같아. 이 때문에 손해가 막심할 것 같아서 큰 고민이야.
학생 A: 그렇구나. 그런데 탐구영역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변환표준점수**를 반영해주니까 큰 상관은 없지 않을까?
학생 B: 그런가? 안타깝지만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들**에서는 그렇게 반영해주지 않는 것 같은데...
학생 A: 그렇다면 각 대학마다 탐구영역을 반영하는 방법도 각기 다르니까, 유리하게 반영되는 곳을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 가령 백분위 점수가 괜찮다면, 백분위 점수를 보는 곳에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학생 B: 아... 내가 지원하려는 모집단위가 개설된 전국의 대학들 중에서 백분위 점수를 보는 곳이 어떤 지를 일일이 찾아봐야겠구나. 너는 성적이 어떻게 나왔니?
학생 A: 나는 가채점 성적이 그대로 나왔어.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 나랑 분명히 가채점 원점수 성적이 달랐던 친구와 동일한 표준점수와 백분위점수를 받은 과목이 있는데, **그 친구**의 말로는 자기가 적어온 것도 100% 그대로 확실하다고 내게 그리 말해줬는데...
학생 B: 네가 잘못 적어온 건 아니고? 혹은 그 친구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대거나...? 특히 매년 입시철마다 **‘홀리건’** 라는 불리는 다른 사람들의 하향지원을 유도해서 특정 대학의 입시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경우들이 존재한 다던데, 무서운 세상인 만큼 조심해야 할 것 같아...
학생 A: 에이 설마...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친구는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친구인데...

1. 대화를 바탕으로 ‘학생 B’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학생 B는 평소 서울대 의대에 합격이 가능한 성적이 나왔으나 수능을 안타깝게도 망친 사례이다.
- ② 학생 B는 실제 수능 성적표가 배부된 후, 지원한 모든 대학의 수시모집 탈락이 확정적으로 변해버린 절망적인 경우이다.
- ③ 학생 B는 가채점 성적에 비해 실제 성적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과 엄마로부터 야단을 맞을까봐 위축되어 있다.
- ④ 학생 B는 탐구영역에서 변환표준점수를 반영해주는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성적을 받지 못했다.
- ⑤ 학생 B는 인서울을 원하기보다도 지방에 소재한 대학에 합격하기를 희망할 것이다.

2. ‘학생 A’와 ‘A의 친구’의 가채점에 양쪽 모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할 때, 양쪽의 가채점 성적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성적을 획득하게 된 이러한 상황을 야기했을 가장 설득력 있을 **타당한 원인**은? [2점]

- ① 학생 A가 문항의 배점을 착각해서이다.
- ② 학생 A의 친구가 자신의 성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부풀려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 ③ 학생 A와 A의 친구가 원점수로는 서로 다른 원점수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환산하였을 때의 반올림 값이 서로 같았기 때문이다.
- ④ 학생 A와 A의 친구가 원점수로는 서로 다른 원점수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원점수를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였을 때의 반올림 값이 서로 같았기 때문이다.
- ⑤ 학생 A와 A의 친구가 원점수로는 서로 다른 원점수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원점수를 등급으로 환산하였을 때의 반올림 값이 서로 같았기 때문이다.

2

원서 영역

3. <보기>는 '정시모집에 지원하기'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이를 수정·보완하거나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보 기 >

제목 : 내게 맞는 원서라인을 알아보기

I. 서론 : 정시모집의 주요 사항들에 대한 소개 ㉠

II. 본론

1. 점수에 따른 자신의 위치와 지원권 분석

가. 과거 모집단위별 합격선과 획득한 수능점수를 바탕으로 한 귀납-연역적 판단 ㉡

나. 올해 주요 입시사이트들에서 진행되는 모의지원 양상을 통한 지원가능권 탐색

2. 구체적인 대학별 유불리 분석

가. 과목별 반영비율에 따른 유불리 변화

나. 점수반영지표에 의한 유불리 변화 ㉢

다. 점수반영방식의 차이로 인한 유불리 변화

3. 최종적인 지원 모집단위 선택

가. 군별 합격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지원 희망 모집단위들의 압축

나. [] ㉣

다. 지원한 모집단위의 향후 전망에 대한 고려

III. 결론 : 원서영역의 중요성 ㉤

- ① ㉠에는 대학 입시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나 기본 지식들을 설명한다.
- ② ㉡에서는 모의지원에 허위점수를 올리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므로 지원가능권의 탐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임을 설명한다.
- ③ ㉢에서는 백분위점수와 표준점수의 차이 등 각각의 점수지표에 따른 유불리 변화에 대해 자세히 다룬다.
- ④ ㉣에는 '3회의 복수지원을 고려한 입시전략의 수립 필요성'이라는 내용을 넣는다.
- ⑤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을 '원서영역에서의 체계적 판단의 중요성'으로 수정한다.

4. 다음 중 '수능의 난이도'와 '모집단위 별 합격선'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합격선'이란 서울 소재 상위 10개 대학의 최근 5년 간의 결과로 한정한다.) [2점]

< 보 기 >

ㄱ. 평균이 빈발하는 해는, 대체적으로 수능의 난이도가 쉬운 해이다.

ㄴ. 수능의 난이도가 어려우면, 통상적인 합격선을 예측하여 대학별 고사의 응시여부를 결정하기가 쉽다.

ㄷ. 수능의 난이도가 어려우면, 합격선이 높게 형성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 ④ ㄴ, ㄷ ⑤ ㄱ, ㄴ, ㄷ

[5~6] 다음 자료는 과거 2013학년도 연세대학교 인문계열 모집단위들의 시간대별 경쟁률 추이 현황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물음에 답하시오.

연세대학교	계열	26일 10시	26일 마감	
자유전공학부	상경	1.25		
국어국문학과	인문-어문	1.00	3.75	
중어중문학과		0.80	4.60	
영어영문학과		?	3.53	
독어독문학과		0.67	4.83	
불어불문학과		?	4.40	
노어노문학과		0.46	?	
사학과		?	2.77	
철학과		2.22	4.22	
문헌정보학과		1.00	3.25	
심리학과		사회	2.18	
경제학부	상경	1.92		
응용통계학과		1.18		
경영학과		3.60		
신학과		기타	2.05	
정치외교학과	사회	1.90		
행정학과		1.25		
사회복지학과		0.71		
사회학과		1.33		
문화인류학과		13.00		
인문홍보영상학부		2.29		
의류환경학과(인문)		1.33		
식품영양학과(인문)	기타	0.71		
주거환경학과(인문)		0.71		
아동·가족학과(인문)		0.83		
생활디자인학과(인문)		1.29		
교육학부		인어문	0.58	
간호학과(인문)		기타	1.50	

* 위 표에서 계열별 분류는 연세대학교의 단과대학 및 모집단위별 분류와는 별개의 분류로서, 이는 통상적으로 수험생들로부터 인식되는 계열별 분류를 기재한 것임.

원서 영역

3

5. 위와 같은 경쟁률 추이를 보인 상황에서, 당시 입시결과로 나타난 합격선의 특징을 추론했을 때 다음 중 옳은 내용은? (단, 당시의 '합격선'이란 통상적으로 알려진 최종 추가합격 합격자의 연세대식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2점]

<보 기>

ㄱ. 노어노문학과와 의 마지막 공개시점에서의 경쟁률은 약 0.46대 1 정도로 다른 여타 인문-어문계열 모집단위에 비해 매우 낮은 경쟁률을 보였으므로, 아마 인-어문 계열 모집단위들 중 합격선이 낮은 편에 속했을 것이다.

ㄴ. 인-어문 계열 모집단위들 중 사학과의 최종 마감경쟁률이 가장 낮은 편이었므로, 아마 사학과의 합격선은 인-어문 계열 모집단위들 중 낮은 편에 속했을 것이다.

ㄷ. 경쟁률이 무난하게 나타난 철학과의 경우, 인-어문 계열 모집단위들 중 무난한 합격선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6.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서접수 마지막 날(26일) 오전 10시에 공지된 경쟁률을 바탕으로 연세대학교에 지원하려고 한다. 그리고 당시 2013학년도 연세대학교에 자력으로는 인-어문계열 모집단위에서 정시모집 합격이 전혀 불가능했던 점수대인 연세대식 환산점수 기준 상위 1.0%의 점수라고 할 때, 모집단위에 관계없이 '연세대'를 합격하기 위한 지원전략으로서 다음 중 합리적인 것으로 묶인 것은? [3점]

<보 기>

ㄱ. 경쟁률이 2대 1 가까이 되었지만 통상적으로 그래왔듯이 신학과의 선호도가 가장 낮을 것이므로, 이 점수로 확실하게 연세대에 합격하기 위해서 전과할 각오로 신학과에 지원한다.

ㄴ.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매년 합격선의 변동폭이 가장 큰, 언론홍보영상학부에 '모 아니면 도'의 심정으로 과감하게 소신지원해놓고 재수학원에 미리 가 있다.

ㄷ. 노어노문학과와 경쟁률이 현 시점 기준 0.46대 1로 가장 저조할 뿐만 아니라, 푸틴 대통령의 비호감스러운 연이은 모습에 노어노문학과와 선호도 또한 낮아진 것 같으므로 노어노문학과에 지원한다.

ㄹ. 문화인류학과와 경쟁률 추이가 첫날부터 비정상적이었으며, 이미 13대 1을 찍고 더 이상 올라갈 여지도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문화인류학과에 미친 척하고 과도상향지원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8]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주어진 물음에 답하시오.

2015학년도 정시모집에서는 각종 변화가 발생했다. 먼저 자연계열의 경우, 의전원과 치전원으로 전환되었던 의대와 치대들이 대거 복귀하기 시작했던 해였다. 이로 인해 기존의 의치한으로 위시되는 의료관련 전문직 모집단위들의 합격선에 변동이 있었으며, 일부 대학들에서는 합격선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자연계열의 수능 난이도가 실상가상으로 쉽게 출제되어 유래 없이 쉬운 물수능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한 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 두 문제만이라도 실수로 틀리게 될 경우, [] 지원하기에 매우 난감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상당수 [] 의치한 모집단위들의 합격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

7. 201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자연계열 의대/치대/한의대 등의 모집단위들에서 밀줄 친 현상이 발생한 이유 혹은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탐구영역의 선택과목의 난이도 차이로 인한 표준점수의 최고점의 차이와 그로 인한 지원하려는 대학에 따른 유불리 현상이 극심했기 때문이었다.
- ② 그간의 입시상황과는 현격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결과 자료로 지원가능권을 가늠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 ③ 의전원과 치전원에서 복귀한 의대와 치대들이 대부분 가군에 몰렸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가군에 있었던 일부 의치대들의 합격선이 현저히 낮게 형성되었다.
- ④ 의전원과 치전원에서 복귀한 의대와 치대들이 대부분 가군에 몰렸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나군 및 다군에 있었던 일부 의치대들의 합격선이 현저히 낮게 형성되었다.
- ⑤ 수많은 의대와 치대들이 복귀함에 따라 대학별 반영방식의 다양화로 인해, 수험생 개인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 및 대학별 유불리 조합이 너무나 복잡해졌기 때문이었다.

8. 다음 중 위의 자료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문구를 고르시오. [2점]

- ①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의(에)'
 ② '수리영역의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의(에)'
 ③ '백분위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의(에)'
 ④ '수능성적으로 비교내신성적을 반영해주는 대학의(에)'
 ⑤ '인문계열 학생들의 교차지원이 허용되었던 대학의(에)'

원서 영역

4

[9~11] 다음 자료들을 바탕으로 주어진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1. 수험생 A, B, C 양의 성적

학생 A	국어	수학	영어	탐구1	탐구2
표준점수	122	129	129	59	58
백분위	85	95	94	76	71

학생 B	국어	수학	영어	탐구1	탐구2
표준점수	124	126	124	64	63
백분위	89	89	88	95	90

학생 C	국어	수학	영어	탐구1	탐구2
표준점수	139	131	132	61	표기오류
백분위	100	99	98	84	표기오류

* 대학 ㄱ ~ ㄴ 에서는 탐구영역의 점수를 2과목을 평균하여 반영하며, 미응시 혹은 표기오류인 경우는 해당 과목을 0점 처리하여 반영한다.

자료 2. 대학 ㄱ ~ ㄴ의 과목별 점수반영비율

군	대학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가	ㄱ	25.0%	32.5%	32.5%	10.0%
가	ㄴ	30.0%	25.0%	30.0%	15.0%
나	ㄷ	20.0%	35.0%	30.0%	15.0%
나	ㄹ	30.0%	25.0%	35.0%	10.0%

백분위	탐구변표
95	64.33
90	62.67
84	61.11
76	59.18
71	57.79

* 네 대학의 탐구영역의 변환표준점수 값은 모두 동일하다.

* 학생 A의 ㄱ대학식 환산점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122*1.0 + 129*1.3 + 129*1.3 + (59.18 + 57.79)*0.4 = 504.188$ 이며,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기로 한다. 한편, ㄴ~ㄹ대학도 각 대학의 과목별 반영비율에 따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한다.

자료 3. 대학 ㄱ ~ ㄴ의 대학별 환산점수대비 상위누적석차백분위 표

상위누적	ㄱ대학	ㄴ대학	ㄷ대학	ㄹ대학
1.7%	514.6	517.9	518.3	516.4
2.0%	513.4	516.6	516.9	515.4
2.3%	511.7	515.3	515.5	514.4
2.6%	510.0	514.2	514.3	513.4
2.9%	508.6	513.0	513.0	512.3
3.2%	507.3	511.5	511.2	511.4
3.5%	506.2	509.9	509.4	510.2
3.8%	505.2	508.6	508.0	509.1
4.1%	504.2	507.3	506.6	508.0
4.4%	503.3	506.3	505.5	507.0
4.7%	502.5	505.4	504.3	506.0
5.0%	501.7	504.3	503.3	505.0
5.4%	500.6	503.3	502.3	503.8
5.8%	499.4	502.6	501.5	502.6
6.2%	498.5	501.8	500.6	501.4
6.6%	497.4	500.7	499.4	500.5
7.0%	496.4	499.5	498.2	499.2

위와 같이 세 명의 학생의 점수가 존재한다. 이들은 ㄱ ~ ㄴ 대학에 각각 지원할 때의 대학별 환산점수대비 상위누적석차백분위를 구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각 군 별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곳에 지원한다. (단, 군 별로 각각 1번씩 지원하며, 학생 C는 탐구영역의 반영비율이 높은 편인, 대학 ㄴ과 ㄷ에는 지원 자체를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

한편, 세 명의 수험생들은 각자 자신이 지원한 곳에서 1위를 하는 경우 최초합격하게 되며, 가나군을 모두 합격한 경우 가군 대학과 나군 대학 중에서 대학별 환산점수의 절대적인 수치가 큰 쪽으로 등록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때, 자신이 지원한 곳에서 2등을 했지만 최초합격자가 다른 군에 등록하여 빠져나가는 경우 추가합격을 하게 된다고 한다. (세 명의 학생과 네 곳의 대학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9. 세 학생의 점수와 대학별 점수반영방식에 따른 유불리 분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A학생과 C학생은 탐구영역에 비해서 국영수를 잘 본 편이며, B학생은 탐구영역을 국영수에 비해서 잘 본 편이다.
- ② 각각의 대학마다 점수반영방식 및 점수반영비율이 다르며, 세 학생 모두 과목별 점수조합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대학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한다.
- ③ 각각의 대학마다 점수반영방식 및 점수반영비율이 다르지만, 학생 C의 경우 탐구영역 1과목을 아예 날려버렸으므로 지원 대학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④ A학생의 ㄱ대학식 환산점수는 504.2점(504.188점에서 반올림)이므로 자료 3의 표에서, 그 점수에 해당되는 상위누적석차백분위는 대략 4.1% 정도이며, 이는 전국의 수험생들을 'ㄱ대학'의 점수반영식에 따라 일렬로 줄 세웠을 때, 100명 중 대략 4.1등이라는 의미와도 같다.
- ⑤ 탐구영역에서 일생일대의 정신적 타격을 입은 학생 C의 경우 가군의 'ㄴ대학'과 나군의 'ㄷ대학'에는 매우 불리할 것이다.

10. 세 학생이 가군과 나군에 각각 지원할 대학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3점]

①	가	나
A	ㄱ	ㄷ
B	ㄱ	ㄷ
C	ㄱ	ㄹ

②	가	나
A	ㄱ	ㄷ
B	ㄴ	ㄷ
C	ㄱ	ㄹ

③	가	나
A	ㄱ	ㄷ
B	ㄴ	ㄹ
C	ㄱ	ㄹ

④	가	나
A	ㄱ	ㄹ
B	ㄱ	ㄷ
C	ㄱ	ㄹ

⑤	가	나
A	ㄴ	ㄹ
B	ㄱ	ㄷ
C	ㄱ	ㄹ

원서 영역

5

11. 세 학생의 최종적인 입시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세 학생이 모두 합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ㄴ. 추가합격으로 기적적으로 재수를 면하는 학생이 있다.
 ㄷ. 세 학생이 합격한 회수는 총 4번이다. (중복합격포함)

- ① ㄱ ② ㄴ ③ ㄴ, ㄷ
 ④ ㄱ, ㄴ ⑤ ㄱ, ㄷ

[12~13] 다음 대화를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4년 연말 정서모집기간, 지방 어느 도시의 한 학교에서

학부모 : 선생님! 그동안 저희 아이 보살펴주시느라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제 기간 12년의 결실을 맺을 때인데, 마지막 원서도 잘 부탁드립니다.

담임 선생님 : 암유. 당연히 그래야지유. 저보다도 ㅇㅇ이가 평소 실력대로 떨지 않고 잘 받아온 덕이지유. 그나저나 ㅇㅇ도 의대에 가고 싶어 하던데, 지금 점수도 충분히 잘 받아왔는데 어머님께서도 그러하시지유?

학부모 : 점수대가 의대에 지원해볼만한 성적이라면야 저희도 그러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아들내미 의사만들어봐야 며느리만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힘든 취업난에 가급적이면 저도 의대로 보내고 싶네요. 호호호

담임 선생님 : 음... 일단 어차피 어느 의대를 졸업하든 간에 똑같은 의사이고, 점수대가 상위권 의대로 가기에 조금 모자란 만큼, 가뜩이나 요새 경기도 안 좋다는데 이번에 대거 복귀하는 ㉠같은 지역의 국립대 의대로 진학해서 집에서 통학하는 편은 어떨까요? 아마도 같은 지역에 소재한 국립대 의대라면 충분히 지원해볼만한 점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모 : 아, 그렇군요. 대략적으로 저희도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딱 그 정도가 아슬아슬한 점수대인 것으로 파악되더라고요. 일단 나다 군에는 국립대 의대보다는 좀 더 합격선이 낮은 사립 의대에 안전하게 지원해놓고, 가군에서 국립대 의대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지요?

담임 선생님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지원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재한 국립대인 ㉡대학교에서는 의대생을 선발할 때, 동일지역 고교졸업자만을 선발하는 지역인재(지역학생)전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학부모 : 전혀 몰랐던 사실이네요! 선생님 그렇다면, 일반전형과의 차이점은 무엇이지요?

담임 선생님 : 일반전형의 경우 전국의 모든 곳에서 지원이 가능한 반면에, 지역인재전형의 경우 해당 출신지역 고교를 졸업한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전형에 있어서 가령 과목별 반영비율도 동일하게 국어를 적게 보는 16/32/32/20 인

것이지요. 점수반영이나 여타 모든 것은 동일하지만, 다만 출신 지역에 따른 지원자격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인재전형은 우리 지역이외에도 전국 각지의 몇몇 대학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도 사립의대 한 군데에서도 지역인재전형으로 별도로 선발하기 때문에, 국립대 1곳 사립대 1곳 총 2곳에서 지역인재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 그렇군요. 점수가 너무 아슬아슬했던지라 국립대의대에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이 너무나 많았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지역인재전형으로 지원하면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

12. 대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위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방 어느 도시의 한 학교'가 속한 지역은? [2점]

- ① 충청권역 ② 강원권역 ③ 영남권역
 ④ 제주특별자치도 ⑤ 호남권역

13. 밑줄 친 ㉠대학으로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 다음 보기의 내용 중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짚지어진 것은? [3점]

<보 기>

ㄱ. 합격의 여부가 아슬아슬한 상황이므로 일단 담임 선생님의 조언을 그대로 따를지에 대해서는 잠시 판단을 보류하고, 주변의 비슷한 점수대의 다른 친구들의 동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숙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ㄴ.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 중 양쪽 모두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지역인재전형의 경우 특정 지역출신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면서도 정원이 동수이다. 따라서 지역인재전형의 경우 지원자격에 제한이 설정된 만큼, 담임선생님의 말씀대로 지역인재전형으로 지원한 후, 기존에 낮춰서 넣으려던 나다군에 대해 소신지원을 할 만한 모집단위를 모색해본다.

ㄷ. 합격의 여부가 아슬아슬한 상황이므로 일단 담임 선생님의 조언을 그대로 따를 지에 대해서는 잠시 판단을 보류하고, 한 분의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께도 찾아가서 그 점수대에서의 지원전략과 방향에 대해 여쭙어 본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담임 선생님과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면, 그때 비로소 담임 선생님의 조언대로 지원한다.

-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6

원서 영역

[14~15]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주어진 물음에 답하시오.

[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모집단위 별 점수대 분포 현황]

추가합격자	77	54	15	46	26
정원	120	130	37	113	146
누적백분위	경영대학	경영대학	자유전공	인문학부	국제어문
	496.278 496.252 496.25	496.39 496.25	496.252 496.24		
496.0 (0.13%)	496.1 496	496.24			
	495.988 495.771	495.98 495.95 495.77	495.771 495.771 495.77	495.79	
	495.607 495.54	495.55 495.53 495.53	495.55 495.55 495.54	495.702	
	495.491 495.491	495.491 495.491 495.28	495.45 495.41 495.41 495.406	495.49	
		495.19	495.195 495.19 495.1	495.21 495.185 495.14	495.121 495
495.0 (0.33%)		494.94 494.92	494.92 494.914 494.92	494.97 495.925 494.89	
	494.713 494.713	494.71 494.618	494.713	494.74 494.713 494.7	494.713 494.66 494.656
		494.433	494.349	494.433 494.43 494.42 494.415 494.33	494.433
494.0 (0.50%)	494.137		494.14	494.21 494.2 494.153 494.15 494.14 494.137 494.06	494.15 494.137
		493.88	493.87 493.863	493.92 493.878 493.873 493.87 493.87 493.868	493.915 493.878 493.87 493.857 493.842
493.6 (0.60%)		493.587		493.773	493.668 493.663 493.66 493.656 493.646 493.635
493.4 (0.70%)	493.35			493.36	493.434 493.43 493.38 493.29
493.1 (0.80%)	493.08	493.08		493.02	493.154 493.15 493.08
				492.9 492.8	492.82 492.816 492.79
492.8 (0.90%)	492.6	492.6			492.71 492.6
		492.32			492.382 492.319
					492.23
1.00%					491.949
	491.346				
1.10%					
1.20%					
1.30%	490.4				
1.50%	489.432				
	489.15				
	488.78				

* 비교 : 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환산점수 산출방법

$$\frac{\text{국어 } s + \text{수학 } s + \text{영어 } s + \text{탐구 } s}{\text{국어 } S + \text{수학 } S + \text{영어 } S + \text{탐구 } S} * 500 = \text{환산점수}$$

이며, 이는 지원자 본인이 획득한 점수를 그 해 수능의 전체 총점으로 나누어, 500을 곱하는 방식임. 이에 전년도와 동일한 고려대식 환산점수를 획득하더라도 수능의 난이도가 상이한 경우 누적백분위 역시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음.

(각 과목별 대문자 S는 해당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을 의미하며, 소문자 s는 지원자가 획득한 해당 영역의 표준점수를 의미함.)

14. 자료만을 바탕으로 도출이 가능한, 2012학년도 정시모집 및 당해연도 고려대학교 입시결과의 양상은? [2점]

- ① 수능의 난이도가 물수능으로 변별력을 상실했던 해였다.
- ② 고려대학교의 원서접수조기 마감으로 인해 최상위권 수험생들 사이에서 대혼란이 있었던 해였다.
- ③ 연세대 경영 등 최상위권 모집단위에서의 이례적인 입시결과로 이목을 끌었던 한 해였다.
- ④ 이전년도인 2011학년도 입시에서 발생했던,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되었던 합격선으로 인해 수험생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되어 소신지원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 ⑤ 최상위권 모집단위들에 소신지원했다면 추가합격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범대 및 기타 모집단위 등에 지원하여 탈락한 경우들도 상당수 발생하였다.

15. 자료에서 나타나는 지원자들의 점수분포현황을 바탕으로 볼 때, 각각의 점수대에 따른 합리적인 지원전략에 대한 추론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고려대식 환산점수가 493점으로 대략 상위 0.80% 정도의 점수인 경우 정경대에 소신지원하기보다는 낮추어 인문으로 하향지원하거나 혹은 자유전공학부에 소신지원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ㄴ. 고려대식 환산점수가 494점으로 대략 상위 0.5% 정도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전공에 관계없이 고려대학교에 합격하기만을 바라는 경우라면, 굳이 경영대에 지원하여 모험하기보다도 무난하게 국제어문학부에 지원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ㄷ. 고려대식 환산점수가 490점 이하인 경우로 대략 상위 1.2%를 벗어난 허수에 가까운 점수라면, 지원자들의 주로 분포하는 점수대와 차이가 얼마나지 않는 국제어문학부보다는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경영대학으로 지원하는 편이 차라리 더 나았을 것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원서 영역

7

[16~20]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대학 ㄱ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수능성적 활용지표	국어 A/B	수학 A/B	영어	탐구영역 (2과목)	계
백분위	25% (100점)	25% (100점)	25% (100점)	25% (100점)	100% (400점)

- * 일반전형(국어 또는 수학 중 B형 1개 응시), 특별전형(A, B형 지정없음)
- * B형 응시에 따른 가산점 없음
-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함

대학 ㄴ

1)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가) 영역별 반영 비율 및 반영 현황

구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계
반영비율	25%	25%	25%	25%	100%
활용지표	표준점수	표준점수	표준점수	표준점수	
가산점	B형선택시 표준점수의 20% 가산			과학탐구 선택 시 5%	

나) 성적 산출 방법

- * 국어, 수학 영역
A형 응시자 : 본인이 취득한 표준점수 x 100%
B형 응시자 : 본인이 취득한 표준점수 x 120%
- * 영어 영역
본인이 취득한 표준점수 x 100%
- * 탐구 영역
사회탐구 선택자 : 본인이 취득한 2과목 표준점수(합산점수) x 100%
과학탐구 선택자 : 본인이 취득한 2과목 표준점수(합산점수) x 105%
직업탐구 선택자 : 본인이 취득한 표준점수(합산점수) x 100%

$$\text{반영점수} = \frac{\sum(\text{국어}, \text{수학}, \text{영어}, \text{탐구 환산점수})}{850}$$

대학 ㄷ

가. 영역별 환산점수의 합 : $\sum(\text{국어} + \text{수학} + \text{영어} + \text{탐구영역})$

나. 당해년도 해당과목 표준점수 최고점을 만점으로 함

다. 환산점수 산출방법

1) 국어, 수학, 영어 환산점수 산출방법

	A형	B형
국어	표준점수 해당과목 최고표점 * 100	표준점수 * 1.05 해당과목 최고표점 * 100
수학		표준점수 * 1.08 해당과목 최고표점 * 100
영어	표준점수 해당과목 표준점수 최고점 * 100	

2) 탐구영역 환산점수 산출방법

사회탐구 * 과학탐구 (2과목)	탐구영역		
	표준점수 해당과목 표준점수 최고점 * 50		
	해당과목 표준점수	물리 I 53	화학 I 64
환산점수 산출예시	$\frac{(\frac{53}{70} \times 50) + (\frac{64}{70} \times 50)}{*70\text{은 두 과목의 최고점}}$		

대학 ㄹ

2.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점수활용지표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 구 중 택1
국,영,수 : 표준점수	25%	25%	25%	25%
탐구: 백분위점수	A/B	A/B		2과목 반영

산출방법: $\sum(\text{국어영역} + \text{수학영역} + \text{영어영역} + \text{탐구영역})$

* 국/영/수 (표준점수 활용)

$$= 150 \times \frac{\text{표준점수}}{\text{당해년도 국어영역 수능 표준점수 최고점}}$$

* 탐구영역 (백분위점수활용)

$$= 150 \times \frac{\text{백분위점수}(\text{탐구영역 2과목 평균 점수})}{100}$$

대학 ㄺ

2.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및 비율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5%	20%	35%	20%

3.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계산방법 (900점 기준)

$$\frac{\sum(\text{지원자의 수능반영영역별 표준점수} * \text{영역별 반영비율})}{\sum(\text{수능반영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 * \text{영역별 반영비율})} \times 900$$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모집단위별 반영영역의 표준점수를 반영함

나. 탐구영역 반영방법 : "변환표준점수"를 적용하며, 가장 우수한 2과목의 합을 반영함. * 제2외국어/한문을 탐구영역의 한 과목으로 인정함

탐구영역 변환표준점수			
백분위	변환점수	백분위	변환점수
100	67.00	88	61.90
99	66.70	87	61.63
98	66.02	86	61.36
97	65.18	85	61.11
96	64.76	84	60.86
95	64.33	83	60.62
94	63.98	82	60.39
93	63.63	81	60.15
92	63.33	80	59.91
91	62.95	79	59.67
90	62.67	78	59.42
89	62.16	77	59.18

		국어B	수학A	영어	사탐1	사탐2	제2외
A학생	표	133	131	120	61	63	69
	백	98	99	82	88	91	100
B학생	표	131	129	126	60	62	64
	백	97	95	90	82	86	87
C학생	표	135	124	125	61	63	66
	백	99	86	89	84	90	94
D학생	표	134	126	123	62	63	48
	백	99	89	86	90	91	61
E학생	표	130	126	124	64	64	48
	백	96	89	88	93	92	61

* 각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B형 139점, 수학 A형 131점, 영어 132점, 사회탐구1 67점, 사회탐구2 66점 등이며, 사회탐구 영역은 5명 모두 같은 과목을 골랐으며, 최고점은 동일하다.

8

원서 영역

16. 제시된 자료에 대한 설명 중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2점]

<보 기>

ㄱ. 제2외국어 영역을 제외하고, 다섯 명의 학생의 표준점수의 합은 508점으로 모두 동일하다.

ㄴ. 국영수사2 표준점수 기준으로 모두 동점이므로 지원하려는 대학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ㄷ. 다섯 곳의 대학들 모두 수능점수를 반영하는 방식 및 과목별 반영비율, 반영지표 등이 서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7~20] 자료에 제시된 5명의 수험생들은 ㄱ ~ ㄷ 대학들에 지원하려 한다. 각각의 수험생들은 한 곳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고, 자료에 제시되지 않은 다른 대학들과 다른 수험생은 없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이때 지원한 곳에서 수능점수가 반영될 때, 제시된 다섯 명 중에서 자신의 성적이 가장 높게 유리하게 반영되는 곳에 지원하는 경우 합격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한다고 가정한다.

17. 제시된 조건에 따라 때, 다음 중 위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판단은? [3점]

- ① 제2외국어에서 백분위로 100을 획득한 'A학생'은 제2외국어를 탐구영역의 한 과목으로 대체하여 반영해주는 '대학 ㄱ'에 유리하므로 그곳에 지원해야 한다.
- ② '대학 ㄴ'은 전 과목을 25%씩 동일하게 표준점수로 반영하고 있는데, 다섯 명의 학생들은 표준점수로는 모두 508점으로 동점이므로 'ㄴ 대학'식의 점수 환산법에 의하면 전부 동점이다.
- ③ 'ㄷ 대학'은 수험생이 획득한 표준점수를 그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으로 나누어서 반영하며, 위의 조건에 따르면 국어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았고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상황이다.
 따라서 동일한 감점을 받은 경우 분모 값이 큰 국어과목에서 감점을 당하는 경우가, 분모가 작은 다른 과목에 비해 데미지가 상대적으로 덜 할 것이므로, 다섯 명의 학생들 중에서 국어에 감점이 집중된 'B학생'이 'ㄷ 대학'에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 유리할 것이므로 이곳에 지원해야 한다.
- ④ '대학 ㄱ'에서는 영어의 반영비율이 다른 과목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35%이므로, 영어를 고득점한 'B학생'에게 유리한 곳이므로 여기에 지원해야 한다.
- ⑤ 1, 2, 3, 4 모두 잘못된 판단이다.

18. 제시된 자료의 조건에 따라 때, 'C 학생'이 지원했을 때 합격가능한 곳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ㄴ. 'ㄴ 대학'
 ㄷ. 'ㄷ 대학'
 ㄹ. 'ㄹ 대학'
 ㅁ. 'ㅁ 대학'

- ① ㄴ, ㄷ ②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19. 제시된 조건에 따라 때, 다섯 명의 학생 중 합격이 가능한 학생의 수는? [3점]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20. 만일 이 문제를 보고 있는 여러분이 '학생 E'의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어디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지원전략이라 볼 수 있겠는가? [3점]

- ① 대학 ㄱ
 ② 대학 ㄴ
 ③ 대학 ㄷ
 ④ 대학 ㄹ
 ⑤ 대학 ㅁ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